



앤서니 김 “유럽 정벌 감 잡았어”

골프 투어 HSBC 챔피언스 첫 날 2위 선두와 1타차... 유럽대회 첫 우승 노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넘어 유럽프로골프투어 정복에 나선 ‘양광테리블’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이 사실상 유럽 무대 데뷔전에서 썰매 날았다.

앤서니는 6일 중국 상하이 서산인터내셔널골프장(파72·7천199야드)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투어 HSBC 챔피언스 1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5개,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다.

선두 자리는 7언더파 65타를 몰아친 헨릭 스텐손(스웨덴)에게 내줬지만 세계랭킹 2위이자 작년 우승자 필 미켈슨(미국), 세계랭킹 3위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그리고 아담 스콧(호주)과 함께 공동2위에 올라 강

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했다.

오른쪽 발목을 빼어 거의 한달 동안 연습을 제대로 못했다는 절뚝거렸지만 거침없는 샷은 여전했다. 12번홀(파3)에서 먼 거리 버디 퍼트를 너무 공격적으로 치다 3퍼트 보기를 적어낸 것이 욕에 티었다.

앤서니는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열린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초청 선수로 출전한 적이 있지만 이 대회는 유럽투어 멤버 자격으로 출전해 사실상 데뷔전이다.

상하이 교민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앤서니는 “미국 PGA투어에서만 주로 활동했고 밖으로 나온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굉장히 편하다”면서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회 단골손님인 최경주(38·나이키골프)는 버디 3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1언더파 71타로 공동 29위에 그쳤다. 티샷이 자주 러프에 빠진 탓에 어려움을 겪었던 최경주는 “실망스러운 성적은 아니다”며 “내일은 타수를 더 줄여 선두권을 따라 잡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지난달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아시아프로골프투어 미더어 차이나 클래식을 제패해 이 대회 출전권을 획득한 고교생 프로 노승열(17·경기교)은 앤서니 김과 동반 플레이를 펼쳐 2언더파 70타라는 준수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국 국적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공동 24위에 오른 노승열은 “퍼팅 실수가 많아 버디를 많이 놓쳤다”면서 “앤서니가 굉장히 편하게 대회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배운 것도 많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앤서니 김(사진 왼쪽)이 6일 중국 상하이 서산 인터내셔널GC에서 열린 2009년 유럽프로골프투어 개막전 HSBC 챔피언스 첫 날 1라운드 경기에서 퍼트를 하기 전 라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8강 진출

亞축구연맹 U-19 선수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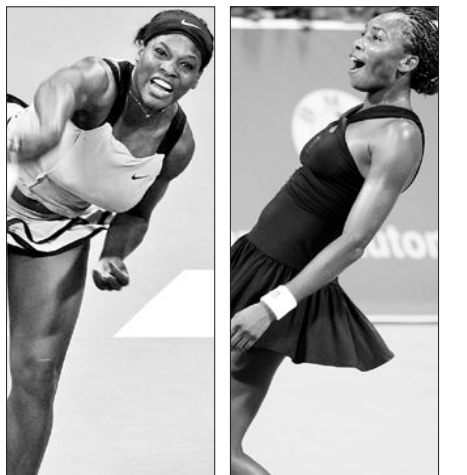
아시아 정상 수성을 노리는 북한 19세 이하(U-19) 축구대표팀이 2008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선수권대회에서 막자로 8강에 합류했다.

2006년 대회 챔피언 북한은 5일(한국시간) 밤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모하메드 빈 파하드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C조 3차전에서 중국과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다.

이로써 조별리그에서 1승2무승부를 기록한 북한은 같은 C조의 중국(2승1무)에 이어 2위에 올라 8강에 진출했다. 북한은 D조 1위 호주와 9일 새벽 2시30분 4강전 티켓을 다툰다.

2004년 대회 챔피언 한국은 A조 1위에 오른 ‘속적’ 일본과 8일 오후 10시15분 준결승길목에서 위너무다리 대결을 벌인다. 한국은 지난 2006년 대회에는 3위에 그쳤다.

한국-일본, 북한-호주 외에 8강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사우디아라비아, 중국-우즈베키스탄 대결로 압축됐다. 한편 이번 대회 4강에 들어간 내년 이집트에서 열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출전권을 얻는다. /연합뉴스



〈서리나〉 〈비너스〉

‘흑진주 자매’ 나란히 첫 승

‘흑진주’ 비너스(8위)-서리나(3위·이상 미국) 윌리엄스 자매가 여자프로테니스(WTA) 시즌 마지막 대회인 소니 에릭슨 챔피언십 예선전에서 나란히 이겼다.

비너스는 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칼리파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예선 마룬그를 2차전 알레나 데벤테이바(5위·러시아)와 경기에서 2-1(6-4 4-6 6-3)로 승리해 2연승을 거뒀다.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동생 서리나도 디나라 사피나(2위·러시아)를 2-0(6-4 6-1)으로 완파하고 첫 승을 올렸다.

마룬그그룹에서는 비너스가 2승으로 예선 통과를 눈앞에 둔 반면 사피나는 2패가 돼 탈락 위기에 몰렸다. 화이트그룹에서는 베라 즈보라바(9위·러시아)가 아나 이바노비치(4위·세르비아)를 2-1(6-3 6(5)-7 6-4)로 꺾고 역시 2연승을 달성했다.

박지성 ‘불안’

3경기째 출전 못해 주전경쟁 밀릴수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박지성(27)이 불안하다. 박지성은 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셀틱과 2008~200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D조 4차전(1-1 무)에서 교체 명단에만 이름을 올렸을 뿐 출격 명령을 받지 못하고 결장했다. 지난달 30일 웨스트햄과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홈경기와 2일 힐시티와 10라운드 홈경기에 이어 3경기째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2005년 맨유에 입단한 박지성이 3경기 연속 결장한 것은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를 제외하고 드문 일이다. 아예 엔트리에서 빠진 것은 아니었다. 3경기 모두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결국 그라운드에서 지 못했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교체카드를 써야 할 때 경기 상황에 박지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체 명단에 꾸준히 들었기 때문에 퍼거슨 감독의 신임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선발인 베스트 11에 선택받지 못한 것으로 봐서는 주전 경쟁에서 밀린 느낌이다.

박지성 SBS 축구해설위원은 “맨유에서 박지성은 자신만의 역할이 따로 있어 보인다. 현재 경기력이 좋은 나이나 기스를 체력적 부담이 없는 선에서 계속 기용하는 것 같고 박지성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7월(금) ▲2008 LPGA 미즈노 클래식 1R(13:00·SBS골프) ▲2008 SBS코리아투어 하나투어 챔피언십 2R(15:00·SBS골프) ▲대학농구 연맹전 2차대회(15:50·SBS스포츠)

▲제63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결승전(18:00·KBS N SPORTS) ▲08/09 프로농구(KCC·SK)(18:50·SBS스포츠) ▲08/09 프로농구(KTF·동부)(18:50·MBC ESPN·Xports) 8일(토) ▲2008 PGA 칠드런스 미라클 네트워크 클래식 2R(03:00·SBS스포츠·SBS골프)

PO행 막차팀 누굴까?

인천·경남·전북 9일 총력전 정규리그 1위도 판가름 날듯

안갯속에 가려있던 프로축구 K-리그 순위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다.

오는 9일 오후 3시 전국 각지에서 치러질 삼성하우젠 K-리그 2008 최종 26라운드 결과에 따라 정규리그 1위는 물론 플레이오프 막차팀 티켓을 쫓 6위 팀도 확정된다.

정규리그 1위 가능성이 큰 팀은 역시 수원 삼성(16승3무6패·승점 51)이다. 지난 주말 25라운드에서 선두를 탈환한 수원은 이번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우승이 거의 확실하다.

수원에 골득실차에서 뒤져 있는 2위 FC서울(14승9무2패)은 마지막 경기에서 대승해야만 뒤집기가 가능하다. 서울은 수원과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차(수원 +20, 서울 +18)에서 밀린다. 수원이 비기고, 서울이 이기면 서울이 1위가 된다. 수원이 지면 서울은 비기지만 해도 1위로 올라선다.

3위 성남 일화(14승6무5패, 승점 48)도 실낱같은 희망이 있지만 1위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골득실차(+23)에서 선두권 세 팀 중 가장 앞선 성남은 일단 최종전을 이

기고 수원과 서울이 나란히 패하는 상황이 오면 극적으로 1위에 오를 수 있다. 최종라운드에서 수원은 인천 유나이티드, 서울은 포항 스틸러스, 성남은 대구 FC와 각각 원정경기를 치른다.

6위 수성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인천 유나이티드(9승9무7패·승점 36)는 아슬아슬하게 선두를 지키는 수원과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맞붙는다. 또 호시탐탐 6위 자리를 노보는 7위 경남FC(10승5무10패·승점 35)와 8위 전북 현대(10승4무10패·승점 34)는 공교롭게도 피할 수 없는 외너무다리 대결을 벌인다.

인천부터 전북까지 승점 2점 범위 내 접전 중이어서 최종전 결과에 따라 6강 행의 기회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인천은 수원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자력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만 수원에 달미를 잡힌다면 6강 플레이오프행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인천이 만약 수원에 패한다면 경남-전북 전 승자는 승점에서 인천에 앞서 무조건 6강 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쥘 수 있다. /연합뉴스

금당부동산

☎(062)223-7400 ☎016-632-5659 (충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와 인터시티나도 중간)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시가·감평가 70%이하

- 군산 고척사거리 63년 도로변 단지266건 평 367.74㎡ 15억에 매입했음 89억엔
- 남동 200평 공시 99억엔 매도56억엔
- 입동가정 공사가 1억엔 매도 1억엔
- 백운동 로터리 모퉁이 단란주점 단지81건 평 294.1㎡ 1억엔 매도 3911천
- 대인동 영주영원동 주택 금남로 57가 대지8건 72공시 2억 2천 매도 2942천
- 주말동 아파트 3억 3000 매도3950천
- 우산동건물용 4층 96평 대지 497500 2억엔
- 의왕이나 특산물 지역 매도 3억
- 신안동 4차선도로 상인지 93평 공시 3억 2천 1억엔 매도 35002천
- 남구 송파동 보문동신 8850평(29256㎡)면적 6천 3공시 4억 2천 매도 1억엔
- 서동 단지 2억 8천 건물 170 평상가 7억 6500 평리 빌딩 1년 30주전
- 한평동 레노비 영남중간동 공사에서 20년 대지 233 건평 382 건평 99억엔 매도 6922천
- 관산구 우산동 단지 86 건평 24. 전세 64000만원 평 40㎡면 평보 4억엔 매도 5952천

감평가이하

- 대인동 단지 100 건평 367 노래방·PC방 원복·부동산 주력 46평 대지 100㎡ 8억
- 호남동 단지 84 건평 297 여관이며 고시원이나 일용직용 평 26개 공시 4억엔 매도 5922천
- 화동 대로변 주유소 단지 384 건평 191 대지 59평 공시 119억엔 현금 3억엔 매도 4000만원

투자

- 송정동 과수원 570평 전양생물학 2억
- 두림동 나대지 83평 8억, 원복 동 지역 공시 7억 매도 25억
- 송정동 나대지 1085㎡(3300)창고, 디세대 등 복합 평당 65만원(222)
- 나주시 신평동 신채리 관리지역임대 2800평 복지시설특목 3억엔

WLB 웰빙공인중개사

양산택지지구내 GS자이1차 단지내상가 ☎062)575-8389 ☎010-4667-7749

임대신속→맞춤형 임대료

- 양산택지지구내 4차선 도로 옆 자이아파트 등산로 입구
- 1층: 165㎡ (754평), 178㎡ (754평)
- 관장: 식당,판매,제업,스포츠용품,전시장, 레스토랑, 카페
- 2층: 178㎡ (754평), 285㎡ (788평)
- 관장: 화원(보습,댄스,무용,강좌), 사무실, 교회

매매/입대/고수익과 안정성 보장

- 양산GS 그린/자이 “단지내상가”
- 면적 매매가 임대수익률 비교
- 50㎡ (구 158) 1억7천 원 14.5% 현 체인점
- 73㎡ (구 228) 2억3천 원 13.0% 현 미용실
- 94㎡ (구 288) 2억9천 원 12.0% 현 디트
- 46㎡ (구 148) 1억5천원 원 13.0% 현 세탁소

임대협의

1. 최소투자금액(저리용지승계,보증금 포함)
 2. 임대사업투자(연13% 이상 고수익)
 3. 빠른 투자금 회수 “부동산 시장이 불황일수록 고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입점완료된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고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 양산택지지구내 상가/대지 전문상담 ○

다우공인중개사

☎523-8114 ☎011-603-1308 (용봉지구 현대3차 사거리)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 대360㎡/건841㎡(지상4층)/12m도로변 코너/용5억6천만/보2억 3천 월795만원/매가 12억7천만
-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 대437㎡/건870㎡(지상4층)/15m도로변 코너/용6억2천만/매가 13억5천만
- ▶최고급 무인텔(직영)
- 대2,057㎡/건2,248㎡/각실28/용15억/매가 28억원
- ▶태양광발전소 및 전철주택
- 입28,200㎡/1,000KW 발전사업허가/매가 3억5천만
- ▶창고부지 및 전철주택
- 입14,109㎡(주거지역 8,870/그린벨트5,239)/현제 가나노 날/매가 8억5천만

저희 사무소는 전속중개 의뢰한 물건만 취급합니다.

대인동심일부동산

☎(062)223-1140, 5210 ☎011-602-2532 (관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령법률경매
T:062)225-2665 H.P:011-605-7777 위치: 법원정문앞